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장애인은 너무 불편해요”

관광휴게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없는 곳 다수 존재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 불편·차별 없어야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가스충전주유소, 공동주택 등 출입구 접근로와 경사로, 승강기, 위생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의 대다수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건물도 학생이나 교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든 없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승강기나 장애인 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

오래된 건물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법적 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장의 의지와 장애인식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양 모씨는 2001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친 휠체어 탄 장애인으로 가장 불편

한 점으로 화장실을 꼽았다. 그는 가스충전 주유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전국의 모든 건물 중 몇 제곱미터 이상 지어진 건물이나 몇 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는 다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양 씨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일을 봐야 하는데 저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건지,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언제든지 가능한 가스충전소 주유소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



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 접근성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민간 교육시설 이창훈 대표는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어 장애인이 차

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법적의무와 관계없이 공공건축물 전체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라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강진읍, '112 나눔 쿠폰'으로 아동이 행복한 날

저소득층 아동 위해 한 달에 한 번 나눔의 날 운영

강진읍사무소(읍장 김영일)는 지난 5일 112 나눔 쿠폰으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11가정에 피자, 치킨, 과일 등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112 나눔 쿠폰사업'은 강진읍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한달(1)에 한번(1) 이웃(2)과 나누는 날을 지정하여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쿠폰을 나누는 사업이다. 현재 13개 업체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대상자 선정은 협의체, 복지이장과 강진군드림스타트, 방과후 아카데미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팀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후원업체를 방문해 쿠폰으로 피자, 치킨, 과일 등을 교환하여 아동의 가정에 직접 전달한다.

후원업체인 '새콤달콤이' 유혜금 점주는 “코로나19로 장기간 등교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비타민을 제공하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다.”며, “작



은 기부지만, 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꾸준히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일 강진읍장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소외되거나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후원 업체를 발굴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강진읍맞춤형복지팀이 추진한 '112 나눔쿠폰사업'은 이웃과 나누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강진읍 맞춤형복지팀(☎ 430-5727, 5728)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월3만원 수당 지급

구례군은 어르신 돌봄의 기초역할을 수행해온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월3만원의 수당을 새롭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이며, 조례에 따라 7,560만원의 군비

를 확보하여 2021년 1월부터 관내 12개소 135명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관내 노인요양시설(5개소, 129명)에는 월5만원의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경 예산 확보 후 1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광주 북구 두암1동, 사물인터넷 활용 취약계층 돌봄

광주 북구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취약 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탑재된 LTE 돌봄 플러그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독거 노인·장애인 가구 등 돌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 감지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대상 주민의 안위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돌봄 플러그'는 지원 대상 가구의 전력 사용량·실내 조명 밝기 변화 등을 감지,

장기간 전력 사용이 없을 경우 동 복지담당자에게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기능을 한다.

복지 담당자는 대상 가구에 유선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방문해 조치를 취한다.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 단체와 협력해 독거 노인 등 20가구를 우선 선별해 '돌봄플러그'를 설치했다.

북구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

